

남북간 심리적 동질성 회복

李 將 鍛*

〈목 차〉

- | | |
|-------------------------------|--------------------|
| I. 머리말 | 기반 |
| II. 남북간의 심리적 이질화 | IV. 남북한의 심리적 동질성 회 |
| III. 남북한 심리적 동질성의
복을 위한 접근 | |

I. 머리말

남북간의 ‘심리적 동질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남북한의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에 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심리적 동질성이라는 용어는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다. 즉, 단일 인종, 동일 언어로 반도의 한 생활공간에서 2천년 이상 같은 문화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민족적 동질성이 이렇게 역사적 공통기반과 언어적 공통성 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라면, ‘심리적 동질성’은 현대적 사회환경과 생활양식간의 상호작용적 함수관계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주민의 認知樣式·情緒·行動傾向 등의 공통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認知樣式·情緒·行動傾向은 바로 정신 세계의 3대 구성요소를 알려진 知·情·意를 말하는 것이며, 가치의식, 好惡感情, 태도 및 신념 등은 知·情·意를 기반으로 한 하위 관련 개념들인 것이다.

남북간 심리적 동질성에 관한 논의는 결국 남북한 주민의 人生에 대한 가치의식, 공통적 정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실천의욕, 화합적 행동과정 등의 공통분모를 발견하는 데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정치 경제적 체제의 통일만이 아닌, 남북간 사회문화적 ‘통합’과 민족생활공동체 형성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장호, 1992). 다시 말해서, ‘단일 민족에 의한 국가통일’이라는 전통적인 논리가 아닌 복합적 경

*서울대학교 교수, 심리학.

제·사회 체제로서의 통합을 이루하기 위한 논의가 될 때에만, 그것이 심리적 동질성이든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이든 실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에서 논의를 남북간의 '심리적 이질성'을 나타내는 제 현상을 점검한 후, 이 이질성을 극복하고 심리적 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동질성 자체—특히 심리적 동질성의 심층구조—는 '회복'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할 성격의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북한 자료를 포함한 실증적 조사연구가 아닌, 기존의 남한 자료 일부를 토대로 한 심리학자로서의 한 고찰에 불과할 것이다.

Ⅱ. 남북간의 심리적 이질화

남북한이 거의 반세기 동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적 사회경제체제의 상반된 정치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 면에서 상당한 이질화 현상이 초래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성격특성들이 이질화되거나 변형되었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남북한 주민의 價値意識·行動類型·意思決定方式 및 消費生活樣式 등에 있어서는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각종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남한 주민의 선호가치들은 '행복한 가족관계'와 '편안한 삶'과 같은 개인적 권리와 '자유'가 상위 순서를 차지하는 반면, 북한 주민의 선호가치들은 '국가의 안전'과 같은 집단의 이익과 '평등'

〈표 1〉 남북한 주민의 지각된 선호 가치

순위	남한 주민	북한 주민
1	행복한 가족관계	국가의 발전
2	편안한 삶	평등
3	자유	편안한 삶
4	타인의 인정	행복한 가족관계
5	국가의 안전	자유
6	일에 대한 성취감	타인의 인정
7	자존감	일에 대한 성취감
8	평등	자존감
9	우정	우정
10	지혜	지혜

자료: 이수원·신건호,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사회발전,"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서울대학교 선경관, 1993년 6월 11일-12일.

이 상위순서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수원·신건호, 1993).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의식만을 별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남한 주민은 자유를 평등보다 더 선호한 반면에 북한 주민은 평등을 자유보다 선호한다고 이 조사는 지적하고 있다($F=44.25$, $d.f.=1/161$, $p<.001$).

이러한 가치의식의 차이는 상이한 두 사회체제 및 이데올로기에 따른 규범적 인지양식(또는 인식의 패러다임)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사회인 남한에서의 個人主義과 사회주의적 사회인 북한에서의 集合主義로 집약되는 認知 패러다임의 반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자율성과 비판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와 집단에의 同調와 수용을 강조하는 집합주의의 틀에서 보면, 앞의 남북한 주민의 선호가치 순위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상반된 인식 패러다임에 따른 남북의 심리적 이질화 현상은 귀순자($N=8$)가 평가하는 남북한 청소년의 성격비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현·김지영(1993)에 의하면, 귀순자들은 남한 청소년의 성격상의 장점은 개인적 자유로움과 적극성이며 단점은 이기성으로 지적한 반면에, 북한 청소년의 장점은 단결력이며 단점은 소극성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남북한이 각기 상이한 교육목표⁽¹⁾에 기초한 상이한 청소년 육성체제를 통해서 각각 비정형화된 개인주의적인 청소년상과 정형화된 집단주의적 청소년상을 지향해온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귀순자들의 평가는 통독 후 동서독 청소년들이 각기 상대방을 "활달하고 약삭 빠르다"거나 "둔하고 순진하다"고 보는 것과도 상통되는 현상일 것이다. 이온죽(1993)은 북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가치지향으로 ① 공산주의적 새 인간, ② 집단주의, ③ 인정주의와 열정적 헌신, ④ 생산 지향과 자기 희생 등의 사회적 태도를 꼽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은 이데올로기 의식의 철저성과 取得本能의 초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것이며,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는 북한의 어린이 교육 지침⁽²⁾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집단주의는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모든 것을 바치는 공산주의적 도덕원칙"으로 정의되고 있으며(사회과학원, 1973),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는 사회주의 헌법 제49조 규정 등에 의해서 공식

(1) 남한의 '청소년 기본법' (1991년 12월 발효) 및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회의에서 채택)와 '인간개조이론' (1985년 출간) 참조.

(2) 북한 '어린이 보육 교양법' (1976).

적 사회규범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한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인간상은 “건강하고 능동적이며 예의를 지키며 공동체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남한에서의 바람직한 인간상은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이 기본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2조에서 그 사회규범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남북한 심리적 동질성의 기반

앞에서 예시한 남북간 심리적 이질화 현상은 그 원인이 반 세기 동안의 분단 자체에 있고, ‘강제 또는 타의에 의하여 진행된 정치이념적 이질화와 사회 조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한 주민의 부모세대의 일부와 조부모 세대의 전부는 분단 이전의 동일한 사회환경에서 출생했거나 성장했다. 즉, 지금의 이질화는 앞으로의 통일반도사회에서의 복합적 民族正體性, 또는 民族共同生活體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중개 변수로 간주되어야 할 현상들인 것이다. 외세에 의한 남북의 과도기적 분단과 단절은 민족 주체세력에 의한 전체적 원형으로의 통합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연적인 역사 발전과정인 것이다. 이 통합적 민족정체성의 회복(또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이야말로 남북통일의 기본적 정신이며 당위성이 될 것이다. 요컨대 “같은 언어와 풍습, 그리고 4천년 이상 함께 살아왔던 한 민족끼리 다시 함께 살아가고자”하는 민족적 염원은 바로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심리적 원형임에 틀림없다.

사회학자는 남북한의 동질성 작용요인으로 전통적 요소의 잔존 및 그 영향과 공업화·도시화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에 따른 ‘수렴론적’ 동질성의 생성을 말하고 있다(이온죽, 1993: 299-300). 즉, 지난 수십년 동안 아무리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였지만, 일부 전통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서 근대화에 작용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는 또 그 나름의 기능적 논리 때문에 산업사회적 형태로의 변화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가치면에서도,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계’·‘가족의 안녕’·‘평등’·‘행복’·‘정직과 성실’ 등의 선호 항목들에 있어서 북한이 남한과 다른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고 유사성이 의외로 크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이온죽, 1988). 이렇게 통치 이데올로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사회적 표방가치에서 적어도 부분적

인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가치지향의 구성내용과 그밖에 남북한 주민이 공유하는 심리적 특성(또는 공통 정서) 등에 관한 자료들에 주목하는 것이 남북의 심리적 동질성 회복으로의 또다른 접근방법의 기초가 될 것이다. 다음에 이에 관련된 한국인의 전통적 심리적 특성으로 알려진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기석(Kim, 1979)은 서구인들과 대비되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개념으로서, ① 全人の 개념, ② 法 위의 인간(man above law), ③ 비언어적인 以心傳心, ④ 內向性, ⑤ 祖上崇拜, ⑥ 情 지향의 전통, ⑦ ‘심리적 대결(encounter)보다 위무(conciliation)’ 또는 ‘분석보다는 통합적 특성’을 열거하고 있다.

이들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지적된 것들의 일부는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인들의 특성과도 상통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超法的 인간관이나 人乃天(인간이 곧 하늘)의 사상과, 현재의 “나”의 존재와 과거의 “아버지들” 간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조상숭배, 그리고 情 지향적 전통적 심리는, 특히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동질성의 공통 기반일 것이다. 따라서, 이 특성들은 남북간 심리적 동질성의 회복 또는 활성화의 주요 매개 변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최상진(1993: 5-21)은 가장 한국인다운 한국인의 심리적 기본 특성을 情과 恨이라고 지적하면서, 情은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기본적 심리문법의 원형이며 恨은 한국인의 성격 및 정서체계의 원형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情은 한국인(남북한 주민)의 대인관계에서 가까움과 밀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되고 있다. 즉, 일본인의 대인 간격이 義理와 ‘아마에’로 기술되고, 미국인의 대인 간격이 好感度로 흔히 기술되는데 비해서, 한국인의 대인 간격(또는 대인 밀착)은 情의 강도로 기술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정은 그 자체로 대인관계의 밀착성을 스스로 지각하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을 가진 당사자들끼리 “우리”라는 의식표상의 그릇 속에 정을 담을 때, 비로소 대인 밀착의 아교와 풀 역할을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민족적 감정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恨에 있어서는, 그것이 감정수준으로서의 한이든 심미 대상으로 전환된 정서체계로서의 한이든 또는 성격특질로서의 한이든, 그 표현과정에서의 공통적 動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恨 풀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에서 시사되듯이, 恨은 풀어야 하고 풀어져야 하는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축적된 긴장을 발산하기 위해 나타나는 여러 인간행동의 과정을 방불케 한다. 어떤 형태로 恨을 표출

〈표 2〉 한국 대학생들의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순위 평점

(단위: N)

순위	국명	한국	미국	소련	일본	중국	북한
제1위		74	2	.	2	1	4
제2위		5	10	4	.	1	62
제3위		.	15	13	11	37	4
제4위		.	17	81	6	24	3
제5위		2	23	34	17	11	6
제6위		2	15	7	46	9	4

자료: 최상진, "한국 대학생의 주변 국가에 대한 사회적 표상 연구," 『중앙대학교 논문집(사회과학 편)』 제34집, p.31.

하든, 한의 감소를 위해 한을 이해하고 표출된 한을 공감해주는 상대를 찾는 행동경향이 나타난다. 예컨대, 한이 많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한을 표현하지 않지만, 자신의 입장과 비슷하거나 공감력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상대를 발견하면 자신의 한을 끊임없이 털어 놓게 되는 경우이다.

남북한 주민간의 심리적 동질성의 기반을 나타내는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가 있다. 이것은 한국 대학생들(N=476: 남자 282명, 여자 194명)의 주변 5개국(미국·소련·일본·중국·북한)에 대한 心象과 태도를 알아본 최상진(1991)의 질문지 조사연구에서 발견된다.

〈표 2〉의 자료에 호감도 1, 2, ……, 6 순위에 각각 6, 5, ……, 1 점의 가중치를 부여해 보면, 한국(475점) 다음으로 가장 호감을 느끼는 국가는 북한(375점)이며, 그 다음이 중국(262점)·미국(238점)·소련(229점)·일본(154점)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주변 5개국 중 제일 높은 것은, 북한의 정치사회 체제보다 북한주민이 동일한 민족이라는 혈연 중심적 "우리 의식"과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통일사회에의 염원이 북한에 대한 호감반응을 증폭시켰다고 연구자는 해석하고 있다.

IV. 남북한의 심리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접근

앞에서 말한 '단절·분단에서 통합상태로의 복원'·'민족생활공동체의 조형 의식'·'자주적 민족정체성의 정립'·'유사한 가치지향, 가족의식 및 조상숭배 사상 등의 공통 인식'·'人情主義와 "우리"의식의 결합'·'남북한 청소년 상호간의 심리적 호감도 및 유대감' 경험의 확대 등은 바로 남북간 심리적 동질성의 회복 또는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안의 기초이며 기본 테제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을 性理學의 理氣性情說에 따라 유형화하면(이상로, 1993: 9-14),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위의 유형화된 도식은 理氣性情의 네 차원에 따른 단순 분류의 인상을 줄지 모르나, 理氣性情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연관적 차원의 것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理와 氣, 그리고 性과 情의 관계는 각각 원리적인 體와 기능적인 用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으로서, 성리학의 理發氣隣, 氣發理乘說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李滉은 聖學十圖중 여섯번째인 心統性情圖說에서 “理와 氣를 겸하고 性과 情을 통합한 것이 마음인데, 性이 發하여 情이 되는 즈음이 곧 한마음의 짐새이다”라고 논했다(이상로, 1993: 10).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앞에서 말한 남북한 주민의 ‘우리’ 의식이나 연대의식(性)이 표출되어(發) 전통적인 人情심리로 결합될 때, 남북간의 호의적 상호관계가 구체적으로 의식화 또는 형상화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의 동질성 회복의 접근틀에서, 理氣차원의 통합적 역사 발전 원리의 인식과 민족정체성 정립욕구의 의식 측면에서는, 특히 ‘인식’과 ‘의식화’의 개념이 중요한 비중을 띠고 있다. 즉, 남북통합은 종래의 인지양식 및 신념기반의 와해 또는 변형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인식틀’로의 전환과 그 의식화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물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관습적 입장이나 인식틀에 구속된다는 사실을 철학자 폴라니(Polanyi, 1966)의 비유에서 살펴보자.

깜깜한 동굴 속에서 한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발 밑을 더듬으면서 진로를 탐색한다고 하자. 막대기가 동굴 속을 탐색하는 ‘자신의 분신’으로서의 도구가 되면서, 막대기 자체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대신 막대기 끝을 통해서 경험되는 동굴에 대한 접촉 내용이 의식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다. 즉, 접촉되는 동굴 속의 지형이 의식의 초점이 되고 막대기가 인식의 틀이 되는

〈표 3〉 理氣性情 차원에 따른 심리적 동질성 회복의 틀

차원	심리적 동질성 회복의 접근
I. 理	‘단절 분단→통합’ 상태로의 발전 원리 인식 ‘종속적 개별공동체→자주적 민족생활공동체’ 형성 필요성의 인식
II. 氣	‘파행적 분열 정체→통합적 민족 정체성’의 정립욕구의 의식화 및 發奮 등
III. 性	‘우리의식, 가족적 유대·연대의식’의 확대 및 생활장면에서의 체험 촉진 등
IV. 情	‘四端七情 ⁽³⁾ 의 공통정서’의 교류적·공감적 체험 기회의 확대 등

(3) 四端之心은 慘隱之心·羞惡之心·辭讓之心·是非之心이고, 七情之心은 喜怒哀懼愛惡慾으로서, 성리학에서는 이를 정신현상의 중심개념들이며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에 속하는 것으로 논하고 있다.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 아주 짧은 막대기를 쥐고 있으면, 앞이 벼랑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있고, 끝에 고무가 달린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앞이 높지대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동굴에 대한 인식은 인식할 때 '인식의 틀'이 되고 있는 막대기에 의해서 달라지기 마련이다. 모든 사회적 갈등은 자기의 인식이 '인식의 틀'⁽⁴⁾에 의해 구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및 집단 사이에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음은 남북간의 심리적 갈등의 해소 방안에 관련된 참고 자료로서 귀순자들의 진술을 살펴본다.

남한 사람들의 개인주의와 향락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에게 혼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 국가 이익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자기 희생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북한처럼 집단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남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지나친 이기주의를 버려야만, 남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어야 통일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으로 북한 사람들을 통일시킨다는 것은 그릇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남한 사회가 잘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올바르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 통일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물질생활을 충족시키는 경제를 도외시하고 있으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 북한체제가 중국처럼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자체적으로 변화될 중간단계가 필요하며, 북한 사람 자신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벌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개인적인 자아주체성 형성이 필요하다(성영신·서정희·심진섭, 1993: 206-207).

이수원·신건호(1993)는 갈등을 제로 썸 게임(zero sum game)이 아닌 통합적 문제 해결 양식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들이 범하는 인식의 오류(Thompson and Hastie, 1990: 47, 98-123)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인식의 오류가 제거되면 적어도 감정적인 대립으로서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갈등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식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식이 '인식의 틀'에 의해서 구속됨을 깨닫고, 인식의 '絕對化'나 實在化에서 可變化나 相對化로 바뀌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수원·신건호(1993)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유선호 집단'·'평등선호 집단'·'조망확대 집단'의 비교연구에서, 피

(4) 막대기, 남북관계의 경우 규범적 사회가치나 정치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조사자들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정책은 주어진 가치차원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쪽으로 평가하며 반대되는 정책은 무조건 나쁜 쪽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자유선호 집단에서는 자본주의 정책이 공산주의 정책보다 '합리적이고 책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이고 이타적'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평등선호 집단은 공산주의 정책이 자본주의 정책보다 '인도적이고 이타적' 일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책임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인식이 신념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속될 때에는 갈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게 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남북간의 심리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접근 방안에서 두번째로 고찰되어야 할 측면은 남북간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들의 극복이다. 이장호(1992: 22-31)는 6·25와 '적색 혐오증', 변화에 대한 저항 및 무관심, 권위주의적 보수성 등을 남북관계의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열거하면서, 동질적 기반의 원상회복으로서의 통일이 아닌 이질성에의 수용을 전제로 한 '통합적 민족생활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25이후의 남북간의 대결적 긴장상태의 극복책은 그 대결구도의 심리적歸因過程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다.

6·25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원자폭탄 보유 및 중국 공산당 정권의 대륙석권 등을 포함하는 당시 공산권의 팽창세와 이를 포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던 일종의代理戰爭으로 귀인될 수 있다. 즉, 갈등원인에 대한 재해석이다.

그리고 남북 정권의 위정자들이 지금껏 각자의 기득권을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에서 영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패권자로 등장한 미소 양대 세력에 결국 附和雷同한 셈이었다. 당시의 위정자들로서는 '위대한 후원자들'의 암묵적 각본에 따라 수임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간의 이러한 대결심리와 적대심리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의 세계적 민주주의·공산주의 사상에 편승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세력의 분파성에도 일부 그 원인이 귀인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여하튼, 특히 6·25 이후의 적대적 경험은 남북 공동의 '부채'로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승화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성공적이려면, 사회체제적 정체성과 남북한 주민의 개인적 정체성은 상호 연관되기는 하나 결코 일치되는 성격의 것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체제 유지의 지향과 목표는 인간 개인 생활의 기대나 목표와는 다른 것이며 상반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갈등 및 긴장이 체제와 이데올로기 집단의 것이지 개인과 개인 또는

다수의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 긴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세번째로 고찰될 수 있는 접근은 심리학의 態度變化理論에서 시사되고 있다. 태도변화이론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변화 근원(source)으로서의 관련자의 신뢰성과 매력을 증폭시키는 노력일 것이다. 변화를 요하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유사성, 친숙성, 호의성의 지각과 체험을 높이는 원리는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있는 접근이다. 태도 변화를 위한 설득의 유형 측면에 있어서도 '공포 수반적 호소(fear appeal)'—예컨대, 남한의 평화의 땅, 남북관계에서의 핵 문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변화 근원으로서의 민족 정신(ethos)과 변화 내용으로서의 情念(pathos) 및 논리(logos)적 설득 모형을 함께 그리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이온죽, 1993).

또한 態度變化의 學習理論에 따라, 북한에 비위협적이거나 정권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는 객관적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고, 一貫性理論(consistency approach theory)에 따라 상호간의 적용과 심리적 내재화 과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機能理論(functional approach theory)에 따라 남북 상호간에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남북이 서로를 필요로 함을 실감케 하며 공동체적 연합의 욕구를 촉발·활성화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과학원

1970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성영신 · 서정희 · 심진섭

1993 "남북한의 경제심리 비교: 귀순자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서울대학교 선경관, 1993년 6월 11 일-12일.

이상로

1993 "성리학에 내재된 심리사상." 『1993년도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서울: 한국심리학회.

이수원 · 신건호

1993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사회발전."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서울대학교 선경관, 1993년 6월 11일-12일.

이온죽

1988 『북한사회연구: 사회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이장호

1992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의 문화심리적 요인."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통일의 장애 요인들』,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1993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서울대학교 선경관, 1993년 6월 11일-12일.
- 최상진
1991 “한국 대학생의 주변 국가에 대한 사회적 표상 연구.” 『중앙대학교 논문집(사회과학 편)』 제34집.
1993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情과 恨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1993년도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서울: 한국심리학회.
- 최 현 · 김지영
1993 “청소년의 성격형성과정에 대한 남북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 통일 문제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서울대학교 선경관, 1993년 6월 11일-12일.
- Kim, Ki-Suk
1979 “Some Key Concepts for Understanding People in Korea.” *Key Concepts of Social Psychology*. Japanese Society of Social Psychology 20th Anniversary Symposium, Tokyo, Japan.
- Polanyi, M.
1979 *The Tactic Dimension*. New York: Double Day.
- Thompson, L., and R. Hastie
1990 “Social Perception in Negoti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